

전남 동부권 제조벨트 'AI 전환' 속도낸다

중기중앙회·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추진 광양·여수·순천 우대...AI트랙 신설 최대 6억4000만원 지원 철강·뿌리산업 디지털 전환 마중물 기대 공급망 경쟁력 강화

중기중앙회와 포스코가 광양·순천·여수 등 전남 동부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우대에 나서면서 광양만권 산업벨트의 인공지능(AI) 기반 제조혁신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기중앙회와 포스코가 광양·순천·여수 등 전남 동부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우대에 나서면서 광양만권 산업벨트의 인공지능(AI) 기반 제조혁신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기중앙회와 포스코가 광양·순천·여수 등 전남 동부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우대에 나서면서 광양만권 산업벨트의 인공지능(AI) 기반 제조혁신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니터링 최적화를 위한 AI 검수 시스템과 스마트 제조 솔루션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AI트랙의 경우 총 사업비 8억원 가운데 정부가 50%, 포스코가 30%를 부담해 기업당 최대 6억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 자부담은 20% 수준이다. 기초 및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역시 정부와 포스코가 각각 총 사업비의 30%씩 지원한다. 고도화 사업은 최대 4억 원 규모까지 가능하며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 공정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광양·순천·여수 소재 기업을 우대 대상으로 명시, 포항·경주와 함께 광양만권 산업벨트를 전략 지원 지역으로 설정하면서 포스코가 지역 제조생태계 경쟁

력 회복에 직접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광양만권은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철강·기계·부품·물류·화학 산업이 집적돼 있는 국내 대표 중화학 공업벨트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철강 경기 둔화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세, 원자재 가격 상승, 탄소 중립 대응 부담 등이 겹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는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 문제가 동시에 심화되면서 단순 자동화를 넘어 AI 기반 공정관리와 생산 최적화 체계 도입 필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실제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의 47.7%가 제조공정 내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포스코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설비 지원을 넘어 공급망 전체의 제조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포스코 직접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간접 거래기업까지

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역 제조 생태계 전반으로 디지털 전환 효과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주조·주물 등 뿌리기업과 ESG 분야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사 등에 대한 우대 지원도 포함됐다. 에너지 효율 향상과 친환경 공정 구축, 산업안전 분야까지 스마트공장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ESG 대응 역량 강화까지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원 기업에는 포스코의 고숙련 전문가 그룹인 '동반성장지원단'의 현장 멘토링도 제공된다. 설비 효율화와 에너지 절감, 안전환경 구축 등 제조혁신 컨설팅과 연계해 단순 시스템 구축을 넘어 현장 생산성 향상까지 지원한다. 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희망 기업에는 철강 ESG 상생펀드를 통한

지역 특별대출도 지원된다. 도입기업 자부담 비용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간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역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광양만권 제조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AI·에너지·첨단소재 중심의 미래 산업 전환 흐름과 맞물려 전남 동부권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한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 "AI트랙 신설과 기초 단계 지원 재개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능형 자율 제조 혁신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동조합과 뿌리기업, ESG 분야 기업 지원을 강화해 제조현장 경쟁력 회복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발언하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총파업 예고 시점을 하루 앞두고 열린 3차 사후조정 회의를 마친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곡성세계장미축제 찾는 관광객 연수원 개방

중진공 호남연수원, 50객실 무료 제공...안전·ESG 교육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이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와 상생 협력을 위해 연수원 시설을 무료 개방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오는 22일 개막하는 '제16회 곡성세계장미축제'와 연계해 축제 방문객과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객실을 무료 개방하고 산업안전·ESG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설 개방은 축제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단 순 숙박 지원을 넘어 정책연수를 병행해 대국민 산업안전 의식과 ESG 경영 인식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개방 규모는 총 50객실(2인실)이며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참가 희망자는 28일까지 구글폼(QR코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대기업 안돼”...국수·냉면, ‘생계형업종’ 재지정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경영 안정 ‘제도적 보호’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지정된 업종에서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이 다수인 시장으로 경영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됐다. 2021년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된 바 있다. 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하는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지정 대

상 업종의 범위를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국수 중 건면·생면, 냉면 중 건면·생면·숙면으로 한정했으며, 대기업 등이 수출·가장간편식(HMR) 등을 위해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대기업 등의 출하량 확장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허용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생산·판매는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031년 5월26일까지 5년이다. 김은지 기자 eunji@gwangnam.co.kr

광주경총, 내일 김정일 교수 초청 금요포럼

한국인 주체성·소통·피드백과 관계주의 주제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가 심리학자 김정일 교수(사진)를 초청해 조직 내 소통과 관계 형성, 한국인의 주체성 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광주경총은 22일 오후 2시에 광주호텔에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정일 교수를 초청해 제1721회 금요초점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역 기업 대표와 유관기관장, 청년 리더 등을 대상으로 '마음 트래킹, 한국인의 주체성과 소통 그리고 피드백과 관계주의'를 주제로 진행된다. 김정일 교수는 아주대 창의력연구센터장과 중앙심리부검센터 초대 센터장

을 역임했으며 현재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인지심리학과 인간관계, 조직문화 분야 전문가로 대중 강연과 방송 활동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마음의 지혜, 김정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적절한 삶, 타인의 마음, 인지심리학은 처음이지?, 심리 읽어드립니다 등이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한국인과 한국문화, 주체성이 높은 한국과 낮은 일본, 상대방 관점에서 문제 묘사하기, 게임의 법칙, 혼수의 문화, 사자의 법칙 등을 중심으로 조직 내 관계와 소통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인의



높은 주체성과 관계 중심 문화가 조직 운영과 피드백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중·일·미 비교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구성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진석 회장은 “중동 사태 장기화와 고부가가치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자들에게는 복잡한 고민보다 지금 당장 실천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번 강연이 조직 구성원 간 건강한 소통과 리더십 향상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건설링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